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연극무용학과	이름	김*은
파견국가	영국	파견도시	콜체스터
파견대학	University of Essex	파견기간	1년(10개월)
귀국여부	8월중 귀국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에식스대학교는 런던근교 콜체스터에 위치해있는 국립대학입니다. 영국내에서 캠퍼스가 있는 몇 안되는 대학교로 학교 캠퍼스안에 부가시설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캠퍼스와 같지만 규모는 좀 더 작으면서 부가시설은 동등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러 동아리와 같은 소사이어티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가생활도 거의 캠퍼스 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p>
수업	<p>British Society and Culture :1 년짜리 과목이고 Study Abroad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총 에세이2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2개를 가을학기 봄학기에 나눠 과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과목인데, 전반적인 영국의 정치 문화 역사 예술에 관해 간단하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다 부담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p> <p>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Digital :아트히스토리, 즉 예술사 과목입니다. 예술관련 과목이다보니 배경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3학년 즉 졸업반 수업이여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편입하기 전 예술경영과 큐레이팅 수업을 외부에서 수강했던 적이 있기때문에 신청했던 수업이었고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시에 아트히스토리학과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인지 간단히 면담을 거치게 됩니다.</p> <p>Intensive Initial French 1 기초 프랑스어 수업이지만 기초가 아니었던 수업입니다. 프랑스어 수업을 이전에 3개월이상 수강하셔서 기본적인 회화가 되시는 분들에게</p>

추천합니다. 2주에 한번 간단히 시험이 있기때문에 공부량이 많았습니다.

#### Study Trip Abroad

:이번 학기에는 비엔나를 갔다왔었습니다. 1주일간 비엔나에서 각종 건축물과 갤러리들을 돌며 수업을 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수업이지만 에섹스대학교 본교 학부과정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한 수업이었으나 저는 우연치 않게 예술관련 전공이라 수강신청이 되었었습니다.

#### Shakespeare and the history play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4000자 에세이와 고전 영문학수업이기 때문에 영문학과 학생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매주 1권이상 책을 읽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뿐더러 그 책이 단순한 소설이 아닌 수업명과 같이 셰익스피어 극들과 역사극 (프란시스 베이컨 등등) 이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 Text into Action

연극전공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과목이 신입생 즉 1학년 과목이고 저는 4학년 졸업반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배운 수업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른 시스템의 교육방식이었고 물론 드라마 수업이기때문에 영어가 원어민 만큼 원할해야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는데 많은 준비를 해야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p>영국내에서 제일 국제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영국친구를 사귀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서포트가 잘 되어있는데 학기 초 에 영국생활 곧 콜체스터 생활에 대한 여러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교환학생만을 위한 British culture and Society 수업이 개설 되어있는데 영국 정치사와 사회전반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기타 에세이 관련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부서는 Telent development 학과 와 Silberred Centre에서 과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영국내에서 가장 건조한 지방이라는 소문은 익히 알고왔지만 정말로 영국답지 않게 비를 마주친게 손에 꼽힙니다. 물론 한국의 장마처럼 내리는 비가 아니라 보슬비 수준이라 우산은 써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여름은 한국 초여름 날씨로 아침 저녁에는 일교차가 크고 겨울은 영하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난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탄다면 전기 담요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p>
안전	<p>캠퍼스안에서 생활을 했고 근처의 타운자체도 안전한 동네이지만 어느곳이든 그렇듯 밤늦게 외진곳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v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내에서 2번째로 악명이 높은 north tower를 저렴한 비용때문에 이용하였지만 14명의 혼성 친구들과 2개의 샤워실. 2개의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며 너무 좋은 플랫폼메이트들을 만나서 아무런 문제없이 아주 청결하고 조용하게 일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어떤 친구들과 세어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v )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한국에서도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먹지 않았고 자취하며 음식을 해먹었기 때문에 직접 요리하는 것이 편해 매끼니를 숙소에서 먹었습니다. 가격에 비해 영국음식이 맛도 질도 워낙에 악명높기 때문에 직접 요리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캠퍼스 중심에 위치한 숙소를 이용해서 학교를 통학하는데에는 3분 4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런던에 자주 갈 계획이라면 기차역에서 레일패스를 30파운드를 사서 이용하는것과, 타운에 자주 간다면 140파운드의 1년 버스패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각각 편도로 끊었고 편도당 70만원이었습니다 총 140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영국 비자 발급시에 필수적으로 영국 국가보험인 NHS를 납부해야합니다.
숙소	3개월간 약 1200파운드, 총 9개월 3600 파운드	
식비	거의 요리를 해서 먹었기 때문에 주당 20파운드 이상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교통비	교통패스 140파운드, 레일카드 30파운드	
책값		
기타1		
기타2		
합계	약 1500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 영어였습니다. 지금껏 영어를 한번이라도 놓은적 없이 꾸준히 공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장벽이되는건 결국 언어였습니다.

교환학생 지원가능한 아이엘츠 점수를 막판에는 충분히 넘겼었지만 그 점수는 그저 지원가능한 점수인것이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충분한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전공이 다른 전공들보다 토론수업과 에세이가 많은 이유도 있거니와 드라마수업은 아무래도 언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되기 쉬웠습니다. 때문에 알아서 가면 늘겠지 하는 막편한 생각은 금물이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던 해에는 하필 한국인이 한두명 밖에 없었던지라 자연스래 유럽권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중에 맺은 인연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회가 있었다라면 한국인들과 서로 어울렸을 수 있지만 한국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온 친구들 끼리만 어울리는 그룹들을 볼때면 조금 안쓰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약 10개월을 같은 플랫폼을 쉐어해온 친구들이랑 이별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또 얼마나 서운한 마음에 사무쳤는지 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 폭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여러모로 많은 기회들로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작품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같은 플레트를 셰어했던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총 14명에서 한층을 셰어했습니다</p>	<p>학교 바로 근처에있는 테스코, 우리나라 이마트와 같은 큰 마트입니다.</p>
	
<p>학교 내에 있는 갤러리고 정기적으로 무료전시가 이루어지고 여러 워크샵들이 진행됩니다</p>	<p>Study Abroad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이벤트들중 에프터눈티 이벤트입니다</p>



겨울 제가 지내던 기숙사 노스타워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강했던 드라마 수업 사진입니다.